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김 문 기*

차례

1. 서 론
2. 退溪九曲의 考證과 園林의 특징
3. 退溪九曲詩의 作者와 詩世界
4. 결 론

【국문초록】

본고는 퇴계구곡 원림에 대한 지난해 여름의 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퇴계구곡 원림의 각 지점을 고증하고 그 원림적 특징과 퇴계구곡시 작자의 생애와 학문, 퇴계구곡시의 작품세계를 고찰하였다.

퇴계구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계 이기순의 퇴계구곡시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었다. 그 후, 퇴계구곡 원림에 대한 조사와 퇴계구곡 관련시를 두루 찾는 과정에서 하암 이종휴의 퇴계구곡시도 창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2007년 8월에 퇴계구곡 원림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퇴계구곡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퇴계구곡의 정확한 지점을 고증할 수 있었다. 퇴계구곡 원림의 제1곡은 사려진, 제2곡은 양진암, 제3곡은 죽동, 제4곡은 장명리, 제5곡은 고등암, 제 6곡은 입부동, 제 7곡은 양평, 제8곡은 청음석, 제9곡은 쌍계인데 이들 퇴계구곡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잘 보존되어 있었다. 도산구곡이 낙동강의 큰 물줄기에 설정된 것과는 달리 퇴계구곡은 퇴계선생의 유적이 산재하는, 낙동강의 지류인 퇴계, 즉 토계천을 따라 5.5km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퇴계구곡 원림이 퇴계선생 생존 시에 지정되고 경영되었는지는

* 경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확인되지 않고 있다.

퇴계구곡시는 하계 이기순과 하암 이종휴, 두 사람이 남겼다. 이기순은 전국의 명산과 대찰, 명현의 유적지를 두루 편답하고 수많은 기행시를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무이구곡도가의 차운시와 퇴계구곡시를 비롯한 도산구곡시, 옥산구곡시, 원명구곡시, 소백구곡시 등 5편의 원림 구곡시를 지었다. 이기순의 퇴계구곡시는 전 2구에서는 주로 각 곡의 주위 경관과 풍치를 묘사하고 후 2구에서는 퇴계선생에 대한 회고의 정이나 성정지정을 탁물우의하여 읊고 있어서 그의 이 구곡시는 인물기흥적인 시라 할 수 있다.

이종휴도 무이구곡도가 차운시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퇴계곡시와 옥산구곡시, 도산구곡시를 창작하였는데 이종휴의 퇴계구곡시도 서경과 서정을 통해 탁물우의의 수법으로 음영성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기순의 퇴계구곡시에 비하여 도학의 묘리를 담은 작품이 많다.

주제어

퇴계구곡, 퇴계구곡시, 퇴계선생, 퇴계구곡 원림, 이기순, 이종휴, 무이구곡도가, 도산구곡시, 옥산구곡시, 원명구곡시, 인물기흥, 음영성정, 도학 묘리

1. 서론

13세기 말엽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15세기에 그 연구가 꽃을 피우게 되자 朱子를 尊崇하던 조선조 유학자들은 주자가 경영하던 武夷九曲園林을 依倣하여 명구승지에 각자의 九曲園林을 설정하고 주자의 武夷九曲權歌를 본받아 자신이 경영하던 구곡원림을 대상으로 하여 園林 九曲詩歌를 창작하였다. 현재 파악된 조선조 구곡원림은 약 140개소에 이르고 그 중, 존재가 확인된 것만도 약 90개소이다. 또한 園林 九曲詩를 비롯하여 次韻 九曲詩까지 합하면 구곡시가의 작품 수는 1,000여 편이 넘는다.

필자가 구곡원림과 구곡시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採芝堂

朴龜元(1442-1506)의 古射九曲 園林이 최초의 구곡원림이고 그가 지은 古射九曲歌가 최초의 구곡시가이다. 다음으로 逍遙堂 朴河澗(1479-1560)이 雲門九曲을 경영하면서 雲門九曲歌를 지었고 비슷한 시기에 退溪 李滉(1501-1570)은 退溪九曲과 陶山九曲을 경영한 듯하나 武夷九曲權歌의 次韻詩는 지은 바 있지만 退溪九曲詩나 陶山九曲詩를 남기지는 않았다.

陶山九曲 園林이 존재하고 霞溪 李家淳(1768-1844)이 陶山九曲詩를 지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으나¹⁾ 퇴계구곡 원림과 퇴계구곡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는 물론이고 그 존재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는 조선조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에 대하여 일련의 조사와 연구²⁾를 수행하면서 退溪九曲詩를 확인하게 되었고 지난 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退溪九曲 園林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퇴계구곡 원림에 대한 지난해 여름의 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퇴계구곡 원림의 각 지점을 고증하고 그 원림적 특징과 퇴계구곡시 작가의 생애와 학문, 퇴계구곡시의 작품세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退溪九曲의 考證과 園林的 특징

퇴계구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霞溪 李家淳(1768-1844)의 퇴계구곡시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었다. 그 후, 퇴계구곡 원림에 대한 조사와 퇴계구곡 관련시를 두루 찾는 과정에서 下庵 李宗休(1761-1832)의 퇴계구곡시도 창

-
- 1) 李殷昌, “韓國儒家傳統園林的 研究”,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8.
 2)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_____, “玉所 權燮의 九曲歌系 詩歌 연구”, 晴峯崔台鎬博士華甲紀念論叢, 2000.
 _____, 聞慶地方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9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_____, 聞慶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한국학술정보(주), 2005.

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廣瀨 李野淳(1755-1831)도 퇴계구곡시를 지은 것 같으나³⁾ 그의 퇴계구곡시 작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창작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李頤淳(1754-1832)의 後溪集에는 陶山九曲詩가 자세한 서문과 함께 실려 있는데⁴⁾ 퇴계구곡시는 실려 있지 않다.

2007년 8월에 퇴계구곡 원림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퇴계구곡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퇴계구곡의 정확한 지점을 고증하였다.⁵⁾ 본 학술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퇴계구곡의 지점 고증 결과와 원림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퇴계구곡 원림의 제1곡은 絲練津, 제2곡은 養眞庵, 제3곡은 竹洞, 제4곡은 鏘鳴瀨, 제5곡은 古藤巖, 제6곡은 林富洞, 제7곡은 羊坪, 제8곡은 淸吟石, 제9곡은 雙溪이다. 도산구곡이 낙동강의 큰 물줄기에 설정된 것과는 달리 퇴계구곡은 퇴계선생의 유적이 산재하는, 낙동강의 지류인 退溪,⁶⁾ 즉 兎溪川을 따라 5.5km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경관보다는 퇴계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설정된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다.

퇴계구곡 원림이 퇴계선생 생존 시에 지정되고 경영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항선생의 문인으로 이항선생과 동시대인인 黃俊良(1517-1563)이 〈詠退溪〉 시에서 “九曲의 찬 시내 땅을 가로질러 맑고 알알한 여울소리 뱃노래 듣는 것 같네”⁷⁾라고 읊은 것을 볼 때 이항선생 당시에 퇴계구곡이 설정된 듯도 하지마는 퇴계집이나 당시의 문집들에 퇴계구곡에 관한 기록이나 시가 없기 때문에 설정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이가순, 이종휴, 이야순,

3) 漱石主人李健之 次武夷九曲韻 仍歌玉山退溪陶山九曲 要予追和 忘拙步呈(下庵文集 卷2)

4) 遊陶山九曲敬次武夷權歌韻十首并序(後溪集)

5) 退溪九曲 各地點의 考證은 龔巖선생 증손 이성원 씨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크다.

6) 退溪 在禮安縣十里 陶山産後(吾家山誌)

7) 九曲寒溪剗地淸

鏘鳴如聽權歌聲

一川風月洋洋趣

留得高人遠世情(詠退溪, 錦溪先生文集 卷2, 外集, 詩)

이이순 등이 모두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므로 18세기 중엽 이후로 퇴계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퇴계구곡 경영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퇴계구곡 제 1곡 사련진은 퇴계천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지점으로 넓은 평야가 전개되는 곳이고 나무가 있었던 굽이이다. 퇴계천 왼쪽에는 下溪 마을이 자리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溪南 마을이 있다. 현재 이 굽이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다만 下溪橋에서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굽이를 돌아서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도산서당에 이른다. 퇴계선생과 문인들의 문집에서 絲練津 혹은 絲津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絲練은 고유의 지명인 아닌 것 같다. 도도히 흐르는 낙동강에 흘러드는 퇴계천의 모습이 실과 같이 가늘다는 의미에서 絲練이라 명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곳은 도산구곡 제 5곡과 제 6곡 사이에 위치하는데, 吾家山誌에는,

자하봉(紫霞峯) 아래에서 한 시내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가면 동암이라 하고 또 3여 리를 거슬러 오르면 토계라 하는데, 퇴계선생 구택이 여기에 있고 광영당 장명퇴 모두 한서암 앞에 있다. 계에서 한 작은 산기슭을 넘으면 도산에 이른다.⁸⁾

고 하였다. 자하봉은 도산구곡 제6곡 川沙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이다. 이 봉우리 아래에서 시내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가면 東巖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3여 리를 거슬러 오르면 兎溪가 나온다. 토계 가에 퇴계선생 구택인 養眞庵이 자리하고 광영담, 장명퇴 등의 연못과 여울이 한서암 앞에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토계의 입구가 바로 사련진으로 판단된다.⁹⁾

8) 峯下循一溪西上 曰東巖 又溯流三數里 曰土溪 退溪先生舊宅在焉 光影塘 鷗鳴瀨 皆在寒栖庵前 由溪齋 踰一小麓 至陶山(吾家山誌)

9) 제 1곡 사련진 중심지점의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 經度: 128°51' 46.63"

제 2곡 양진암은 제 1곡으로부터 약 1km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上溪里와 연결되는 길은 왼쪽으로는 遠村으로 넘어가고, 아래로는 下溪里로 이어진다. ‘養眞庵’이라 적힌 표석이 있고, 그 위에 퇴계선생 묘소가 있는데, 이곳이 東巖이다. 퇴계전은 이황선생 묘소 앞 계남 들판을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다.¹⁰⁾ 양진암은 퇴계선생이 한 때 기거했던 곳인데,¹¹⁾ 퇴계선생이 46세(1546) 때 병으로 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擘芝山 기슭 동암에 養眞庵을 짓고 토계 [兎溪, 吐溪, 兜溪, 툃계]라고 불리던 집 앞 시내 이름을 退溪라고 쳐 부르고 이를 號로 사용하였다.¹²⁾ 49세 때에 <퇴계>¹³⁾라는 시를 짓고 토계를 퇴계로 고쳐 부른 숨은 뜻은 벌써 작성된 귀향곡의 전주였다고 한다.¹⁴⁾

제 3곡 죽동은 우리말로는 땃골이라 하는데 퇴계선생이 잠시 기거했던 곳이다. 제 2곡으로부터 약 700m정도 퇴계 종택 쪽으로 가다가 上溪里에서 下溪里로 이어지는 길에서 옆으로 난 작은 길로 올라가면 죽동이 나타난다.¹⁵⁾

• 위도 : 36°43' 22.07"

10) 제 2곡 양진암 중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 경도 : 128°51' 40.43"

• 위도 : 36°43' 50.14"

11) 양진암은 은계 하류 5리쯤인 건지산 남쪽 산기슭이 다한 곳에 있다. 바위가 있는데 동암이라 한다. 선생이 양곡당에서 옮겨 살며 작은 암자를 짓고 양진이라 이름하였다(養眞庵 在溫溪之下流五里許 擘芝山南麓盡處 有巖曰東巖 先生 自陽谷堂移寓 築小庵 名曰養眞) (後溪集 卷4, 雜著, 文純公宅里水石亭臺祠廟錄).

草草開庵號養眞 허둥지둥 암자 열어 양진이라 이름하니

依山臨水足顯神 산에 기대고 물에 임하여 정신 수양 족하네

故人千里如相識 천리 먼 길 있는 벗을 서로 아는 듯하니

書面先題兩字新 편지에 먼저 적은 두 글자 새롭구나 (吾家山誌)

12) 兎溪 在溫溪下流三里 先生以兎字俚俗故 改以退字因以自號 (後溪集 卷4, 文純公宅里水石亭臺祠廟錄)

13) 身退安愚分 벼슬에서 물러나니 분수에 편안하고

學退憂暮境 학문에 물러서니 느지막이 걱정되네

溪上始定居 비로소 퇴계위에 거처를 마련하니

臨流日有省 날마다 물가에서 깨달음이 있다네 (退溪集 권1, 詩)

14) 丁淳睦, 退溪評傳, 지식산업사, 1989, 57쪽.

15) 제3곡 죽동 중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죽동에는 지금 몇 가구가 살고 있을 뿐이고 별다른 빼어난 경치는 찾아볼 수 없다. 퇴계선생은 하명동 자하봉 아래 양진암을 지어 복거하다가 관에서 설치한 어량이 가까워 죽동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하명동은 동암 동쪽 1리쯤인 자하봉 아래에 있는데, 땅을 얻어 집을 지었으나 마치지 못했다. 또 마을이 낙천에 가깝고 낙천은 곧 관청이 급하여 살기에 마땅하지 않은지라 자손이 죽동에 옮겼다.¹⁶⁾

이곳 동네가 너무 협소하고 흐르는 시내가 없어서 다시 퇴계 가 [溪上]로 옮겨 살게 되었던 것이다.¹⁷⁾ 죽동은 퇴계선생이 두 번째 거처했던 곳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면은 있지만 그 골이 좁고 흐르는 물이 없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퇴계선생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라 후인들이 퇴계구곡의 한 굽이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4곡 장명되는 퇴계 종택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굽이이다. 옆에는 성황당이 자리하고 그 맞은편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다. 시내 옆으로 바위 벼랑이 자리하고 있으며 시내 위에 놓인 좁다란 다리 앞에 작은 보가 놓여 있어 퇴계천을 흐르는 물이 이곳에서 낙차를 이루어 떨어지고 있다. 현재는 지형이 변하여 소리를 내며 흐르는 여울은 존재하지 않지만 보로 인해 큰 낙

• 경도 : 128°51' 12.59"

• 위도 : 36°44' 10.53"

16) 霞明洞 在東巖東一里許紫霞峯下 得地營室未畢 又洞近洛川 川乃官禁 不宜居 子孫遷于竹洞 (後溪集 권4, 雜著, 文純公宅里水石亭臺祠廟錄).

17) 선생이 하명동 자하봉 아래에 땅을 얻어 집을 지었으나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죽동에 옮겼는데, 또 마을이 좁고 시내가 없는 것으로 이에 계상 동암에 복거하였다(先生 得地霞明洞紫霞峯下 營室未畢 又遷于竹洞 又以洞陝隘 且無溪流 乃卜於溪上東巖) (退溪集, 年譜).

선생 50세(1550)에 아직 집이 없어 처음에 자하봉에 복거하고 중간에 죽동으로 옮기고 끝에 퇴계 가에 정하였다(先生 五十歲 尙無家 初卜于霞峰 中移于竹洞 竟定于退溪之上) (退溪集, 年譜, 言行錄).

차로 떨어졌을 시냇물을 상징해 볼 때, 옥 구르는 소리가 낮음직하므로 이 굽이가 장명퇴곡이라 고증할 수 있다. 장명퇴는 옛 寒棲庵 아랫 쪽에 위치하고 있다.¹⁸⁾ 한서암은 퇴계선생이 기거했던 곳이다. 지금 퇴계 종택 옆, 논가가 옛 한서암 자리이다. 지금은 한서암 자리에 舊址를 표시하는 팻말이 서 있는데 논길을 따라서 20여 미터 들어간 지점이다.

제 5곡 古藤巖은 상계1교와 상계2교 사이의 지점이다.¹⁹⁾ 퇴계가 이 지점에 이르러 한 굽이를 이루며 흘러간다. 시내 맞은편에 溪山書堂이 있다. 상계1교 앞에는 시냇가에 바위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등암으로 추정된다. 한서암 옛터와 토계 사이에 있는 논에 크고 넓은 돌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彈琴石이다. 퇴계 종택이 시내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퇴계선생 연보에는 고등암에 관하여,

“선생 50세(1550)에 아직 집이 없어 처음에 자하봉에 복거하고 중간에 죽동으로 옮기고 끝에 퇴계 가에 정하였다. 집 서쪽에 시내를 임하여 정사를 짓고 한서라고 이름하였으며 샘물을 끌어들이어 못을 만들고 광영이라 이름하였다. 매화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세 길을 열었는데, 앞에는 탄금석이 있고 동에는 고등암이 있다.”²⁰⁾

고 하였다. 고등암도 한서암 앞 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퇴계선생은 집 서쪽 시내를 임하여 한서암을 지어 靜習堂이라 이름하였고 못을 파서 光影塘이라

18) 제 4곡 장명퇴 중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 경도 : 128°51' 1.22"
- 위도 : 36°44' 8.21"

19) 제 5곡 고등암 중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 경도 : 128°50' 55.78"
- 위도 : 36°44' 16.93"

20) 先生 五十歲 尙無家 初卜于霞峰中 移于竹洞 竟定于退溪之上 宅西臨溪 作精舍 名曰寒栖 引泉爲塘 名曰光影 植以梅柳 開以三逕 前有彈琴石 東有古藤巖(退溪集, 年譜).

하였다. 그리고 매화나무 버드나무를 심고서 세 갈래 길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탄금석이 있고 동쪽에 고등암이 있었다.

제 6곡 임부동은 제 5곡에서 300m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토계교 아래로 흐르는 물이 이 지점에서 한 굽이를 이루는데, 이 굽이 왼쪽에 있었던 마을이다.²¹⁾ 지금은 비스듬히 경사를 이루는 밭만 자리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인가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 굽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옆으로 도로가 있으며 도로 옆에 ‘열화민박’이라는 숙박시설이 있다. 도로를 따라서 이 굽이를 내려가면 퇴계 종택이 나타난다. 이 굽이 위에 있는 토계교는 도산서당으로 넘어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다.

제 7곡 羊坪은 양평교가 있는 지점으로 양평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이다.²²⁾ 퇴계가 이 지점에 이르러 한 굽이를 이루고 흘러가는데, 굽이 오른쪽엔 양평 마을이 자리하고 왼쪽엔 그리 넓지 않은 들판이 있다. 竹牖 吳灋(1540-1617)이 이 마을에 살았으며 그 후손들이 마을을 떠나서 고령에 자리를 잡았다.

죽유 오운은 퇴계의 문인으로 1561년(명종 16) 생원시에 합격하고 1566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의 學諭·학정·박사·典籍·直講 등을 역임하였다. 1583년(선조 16) 경원부 阿山堡의 추장 藩胡가 난을 일으키자 北道助戰將으로 나가 공을 세웠다. 그 뒤 충주목사 겸 編修官을 거쳐, 司成을 지낸 뒤 司宰監正이 되고, 1589년 光州牧使로 나갔다가 해직되었다. 1592년

21) 제 6곡 임부동 중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 경도 : 128°50' 45.18"
- 위도 : 36°44' 13.11"

22) 제 7곡 양평 중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 경도 : 128°50' 39.27"
- 위도 : 36°44' 40.79"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郭再祐의 휘하에서 召募官·收兵將 등으로 활약하였다. 그 때 白嶺에서 모집한 의병이 전후 2만여 명에 이르렀다. 특히 의령 부근의 전투와 현풍 전투에 군공이 뛰어났다. 1593년 상주목사가 되고, 이듬해 합천군수를 지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다시 합천 부근의 왜적을 쳐서 공을 세워 도원수 權慄의 추천으로 通政大夫에 오르고, 명나라 장수 陳璘 제독의 接伴使로 활약하였다. 1599년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장례원판결사에 승진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1608년 다시 기용되어 경주 부윤이 되었으며, 1616년(광해군 8) 공조참의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이 때 時政得失을 진술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와 함께 분전한 17將의 한 사람으로 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던 인물이다.²³⁾

그리고 이 곱이는 퇴계산생 제자 春塘 吳守盈(1521-1606)과 관련이 있는데 오수영의 무덤이 바로 양평에 있다. 오수영은 1555년(명종 10)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05년(선조 38) 壽職으로 龍讓衛副護軍이 되었다. 어려서 이항의 형제들과 함께 외할아버지인 李堉에게 글을 배웠고, 뒤에 이항을 스승으로 섬겨 일거일동을 지시에 따르니 스승도 二程全書를 손수 베껴주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72세의 고령으로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 못함을 한탄하여 趙穆과 金誠一에게 글을 보내 국방에 전력함을 독려하고, 李如松에게도 글을 보내 전공을 치하하였다. 글씨를 잘 써서 琴輔, 李叔樛 등과 함께 宣城三筆의 칭호를 얻기도 한 인물이다.²⁴⁾

제 8곡 淸吟石은 兜溪精舍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반석으로²⁵⁾ 퇴계선생

23) 竹圃先生文集, 附錄下, 行狀 및 墓碣銘.

24) 春塘先生文集 권4, 附錄, 行狀 및 墓碣銘.

25) 제 8곡 청음석 중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 경도: 128°50' 12.65"
- 위도: 36°44' 32.09"

이 명명한 것이다. 1511년 퇴계선생 11세 시에 숙부 李堦가 휴가를 받아 내려와 이곳에서 노닐었는데 이때 퇴계선생도 동행했다고 한다.²⁶⁾ 이 지점을 한 굽이로 설정한 것은 퇴계선생의 시 〈淸吟石〉과 관련이 깊다. 청음석은 퇴계천의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리 큰 돌은 아니지만 그 돌에 담긴 의미는 남다르다. 청음석 맞은편에는 이황선생의 숙부 李堦가 거처하던 兜溪精舍가 자리하고 있는데, 정사에 淸吟軒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어 청음석과 관련이 깊음을 말하고 있다. 청음석과 관련하여 吾家山誌에는,

은계 하류에 반석이 시내에 임해 있다. 신해 년에 숙부 송재 부군이 강릉 감사가 와서 뵈는 일로 계상에 나아가 노닐 때에 내가 동자로서 곁에서 모셨는데, 붉은 옷을 입은 관인이 와서 배알하니 곧 창락 잘방이었다. 숙부가 시를 지어 '시내 산의 오묘함을 사랑하여, 송문에 나 홀로 감돌아들어 흥겨워 시 읊을 제, 맑은 뜻이 깨어지니 누가 독우를 오게 하였는가' 하였다. 지금 형질과 더불어 여기에 모여서 지난 일을 추억하니 감탄을 금할 길 없었다. 이윽고 그 돌을 이름하여 청음석이라 한다.²⁷⁾

고 하였다. 퇴계선생은 시 〈淸吟石〉에서 총각 때에 숙부를 모시고 놀던 모습을 그리워하며 숙부에 대한 사모의 정을 토로한 바 있다.²⁸⁾

26) 김대중 편역, 도산에 사는 즐거움, 돌베개, 2008. 69쪽.

27) 溫溪下流 有盤石臨溪 辛未年中 叔父松齋府君 以江原監司來觀 出遊溪上 滉以童子侍側 有紅衣官人來謁 乃昌樂丞也 叔父有詩曰 欲得溪山妙 松門獨自回 淸吟還敗意 誰遣督郵來 今與諸兄姪會此 追念前事 感歎久之 因名其石曰 淸吟石(吾家山誌).

28) 總角陪遊地 총각으로 모시고 노닐 땅에
吟魂去不回 시 읊던 혼은 가서 돌아오지 않네
唯餘溪石響 오직 남은 것은 시내 돌 소리
似欲慰重來 다시 찾는 이를 위로 하려는 듯

坡陀巨石在 반반하고 큼직한 돌이 있으니
窈窕一溪回 그윽히 시내 하나 돌아가누나
更待山花發 산꽃 피길 다시금 기다려야지
吾今較早來 내 지금 조금 일찍 왔나 보구려 (退溪集 권1, 詩)

제 9곡 雙溪는 만리산에서 발원한 靑溪와 용두산에서 발원한 溫溪가 만나는 지점이다.²⁹⁾ 청계와 온계가 만나서 퇴계천이 된다. 청계교가 청계 위에 놓여 있으며 청계교 위쪽으로 온계 2리가 자리하고 있다. 이 굽이 왼쪽으로는 퇴계선생 태실로 이어지고 오른쪽은 얇은 산과 그 아래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두산은 예안 북쪽 경계와 대치하니 기세가 크고 높다. 그 한 줄기가 남으로 와서 시내에 임해 그친 곳을 수곡이라 하니 나무로써 골짜기를 이름하였다. 골짜기 남쪽에 마을이 있는데, 온계라 하니 시내로 인하여 마을을 이름하였다. 시내와 산의 형세는 손을 잡고 읍을 하여 둘러있는지라 그 기운테가 크고 넓어 살면서 농사지를 만하다. 처음 우리 선조가 안동에서 마을에 와서 살면서 골짜기에 장사지냈다. 선고와 숙부가 모두 여기에 장사지내면서부터 삼영육묘이니 아울러 아버지는 앞에 어머니는 뒤에 하였다. 자손의 거처는 산 아래에 벌려 있다.³⁰⁾

청계는 당시 현의 서쪽 落帽峰 아래를 흐르는 시내인데 서북으로 7, 8리를 올라가면 아름다운 龍頭山이 솟아있고 그 한 줄기가 남으로 내려와 시내를 임하여 그치는 곳이 樹谷이며 그 남쪽 골짜기가 바로 溫溪洞이다.³¹⁾ 온계는 태백산을 주룡으로 하는 靈芝山 기슭에 자리잡은, 풍광이 수려한 곳이다.³²⁾ 현의 동쪽 부라촌에서 살던, 퇴계선생의 조부께서 온계동이 산세가 손을 잡고

29) 제 9곡 쌍계 중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 경도: 128°49' 58.04"
- 위도: 36°44' 44.3"

30) 龍頭之山 峙禮北境 氣雄而勢尊 其一脈之南來臨溪而止者曰樹谷 以樹而名谷也 谷之南 有洞曰溫溪 因溪而呼洞也 溪山形勢 拱揖環抱 其中廓而有容 可居可耕也 始吾先祖自安東來居於洞 而因葬於谷 先考及叔父 皆從葬於是 三塋六墓 并考前而妣後 子孫之居 列於山之趾焉(樹谷庵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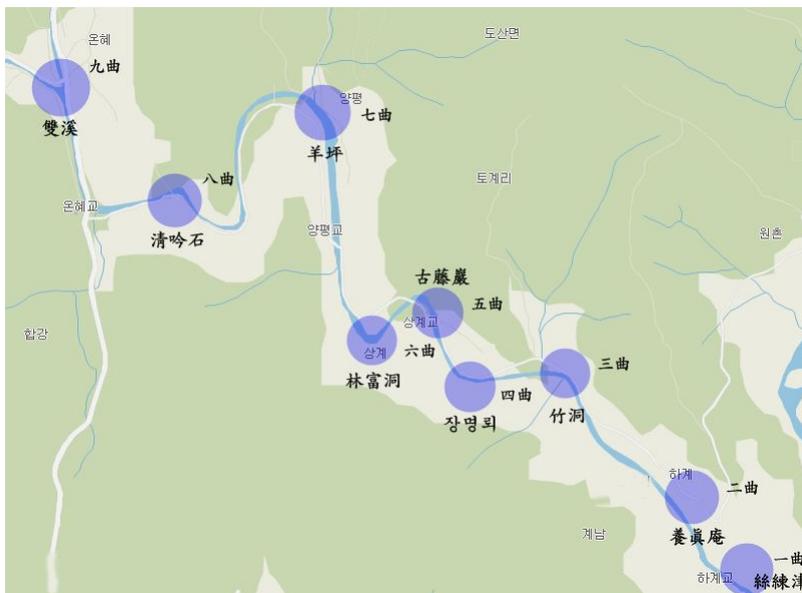
31) 又西走數里 起一岑 曰落帽峯 峯下曰清溪 緣溪西北上七八里 一山氣雄勢尊 與拳芝 並秀而尤佳麗 曰龍頭山 山之寺 曰龍壽(先生 少日 讀書之所) 其一支 南下臨溪而止 曰樹谷 谷之南 曰溫溪洞(退溪集, 年譜).

32) “태백산 나린용이 영지산이 높아서라 / 황지로 소순물이 낙천이 딸가서라 / 퇴계수 도라 드러 온계촌 올라가니 / 노송정 높흔집에 대현이 나시섯다 / (도산별곡, 김문기 소장본).

읍을 하여 크고 넓어서 ‘이곳에 살면 귀한 자손을 둘 것’이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이 곳 온계로 이사한 후, 퇴계선생은 31세 시에 온혜리 영지산 기슭 陽谷에 芝山蝸舍를 마련하여 후일 건지산 양진암으로 옮기기 전까지 거처하였다.

이 굽이를 구곡으로 설정한 이유는 청계와 온계가 합류하여, 퇴계의 삶의 자취가 깊이 서려 있는 退溪川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퇴계구곡 원림의 지점 고증과 원림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퇴계구곡 각 지점의 위치를 지도 상에 표시해 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퇴계구곡 위치도

퇴계구곡은 제1곡부터 제9곡까지 길이가 약 5.5km이고 그 폭이 10-15m 정도이기 때문에 중, 소형의 구곡원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구곡은 도산서당이 완공된 1560년 이전, 퇴계선생 46세 때인 1546년부터 59세 때인 1559

년까지 약 15년간 거처하던 퇴계선생 藏修之處요 居敬과 講學의 무대였다고 볼 수 있다. 퇴계선생 당시에 퇴계구곡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퇴계구곡이 본격적으로 경영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3. 退溪九曲詩의 作者와 詩世界

1) 李家淳의 退溪九曲詩

(1) 이가순의 삶과 문학 활동

이가순의 본관은 眞寶, 자는 學源, 호는 霞溪이다. 李滉의 후손으로, 慶基 殿參奉 龜書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安東金氏로 정랑 五應의 딸이다.

이가순은 진성 이씨의 家學을 이었다. 退溪 李滉으로부터 시작된 학맥이 衞基시첩정 李騫, 목사 증이조참판 李詠道, 공릉참봉 李岐, 장수도찰방 증이조참의 李希哲, 증이조참판 李懷至, 증조부 정릉참봉 증이조판서 李守約, 조부 지중추부사 李世師에 이르며 가학을 이루었다. 이 가학을 아버지인 李龜書가 있고 이를 이가순이 이었다.

이가순의 家學은 퇴계 학맥에서 나름대로 한 학맥을 이루었다. 이를 위해 진성 이씨 이가순의 문중은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가순도 이러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 아버지 이귀서는 어느 날 아들 이가순이 공부를 하지 않자 빈 방에 책과 함께 아들을 가두고 틈으로 음식을 주면서 공부하게 하였다. 이에 이가순은 빈 방에서 지면을 나누어 두 손으로 유희를 하였는데 노닐던 티끌이 卷面에 가득하였다. 마을의 장로들이 이를 듣고 모두 의기를 중히 함이 많다 하였다.³³⁾ 이후에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공부에 정진하여

33) 先公教法甚嚴 一日怒其放課 并所授冊 鎖之空室 從隙饋之 後數日 兄嫂成夫人啓戶 則畫局於地 兩手爲局戲 而遊塵滿卷面 長老聞之 皆以尙氣多之(『霞溪文集』 권12, 行狀).

자신의 자질을 발휘하였는데 약관의 나이에 향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성균관에서 수학할 때 정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는데 정조가 이가순의 풍채가 매우 크고 외모가 엄정하고 단정한 것이 여러 유생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보고 “용모가 좋다”고 하였다.³⁴⁾

정조의 남인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이가순의 뛰어난 자질로 인하여 그는 여러 벼슬자리에 올랐다. 참봉으로서 1813년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1814년 통사랑으로 임명되고, 1820년 省峴道察訪, 1821년 시강원설서 등을 역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가순은 진성 이씨 家學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1796년 가을 河西 金麟厚의 陞廡疏論의 원본을 보니 사단칠정설을 끌어 인용하였는데 퇴계의 본래 뜻과 다른 것이 있어서 여러 차례 논의를 왕복하였으나 뜻이 합하지 않자 마침내 藥房의 여러 유생들과 더불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陞享日에 이르러 이가순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疏語로 물러나서 번거로운 예에 이르더라도 어찌 스스로 外人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수행하였다.³⁵⁾

그리고 이때에 퇴계 이황의 주손이 永柔令에 제수되어 祠版을 받들고 부임하는 길에 도성을 지나니 정조가 백관에게 명하여 공손히 맞이하여 성균관에 안치하라 하고 近臣을 보내어 異數로 致祭하게 하니 그 응접이 번거롭고 많았는데 이가순이 좌우로 이를 주선하며 모두 예의에 합당하게 하니 보는 이가 모두 칭찬하였다.³⁶⁾ 이렇듯 진성 이씨 가학을 지키려는 이가순의 노력은 그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다.

34) 上見 其風姿頎頎 儀表凝整 出諸儒中 命舉顔曰 容貌好矣(『霞溪文集』 권12, 行狀).

35) 丙辰秋 有河西金文靖公 陞廡疏論 見其疏 本拖引四七說 而有貳於溪門本旨 屢次往復 終不合 遂與藥房諸儒并不參論 及至陞享日 公曰 吾儕雖以疏語引退而至於綱禮 寧可自外 遂隨行(『霞溪文集』 권12, 行狀).

36) 時 文純公 胄孫 除永柔令 奉祠版 赴任路 過都城 上命百官 祇迎安于成均館 遣近臣 致祭 異數也 應接煩浩 而公左右周旋 曲當禮意 見者皆稱之(『霞溪文集』 권12, 行狀).

정조 이후, 이가순의 벼슬살이는 순탄하지 않았다. 순조 이후 노론이 정권을 잡으면서 남인들이 다시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1822년에 印信을 소홀히 하였다는 무고로 단양으로 유배되었는데 단양은 퇴계 이황이 벼슬한 고을이라 名山, 韻水, 奇島, 異巖에는 모두 이황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 이가순은 퇴계의 옛 자취를 사모하여 굽이를 쫓아서 시를 지었는데³⁷⁾ 선조의 유적을 사모하는 이가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1823년에 유배에서 풀려나 사과·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826년 겨울 紹修洞主로서 朱子書를 강론하고 동지들과 더불어 시를 지어 여러 유생을 면려하였다.

1831년 선전관에 이어 사간원정언·홍문관수찬·사헌부장령·응교·교리 등을 역임하면서 時弊를 구제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 중, 1838년에 올린 辭司諫院司諫附陳民口五條疏는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 소이다. 1839년 겨울 이가순은 順興 臥蘭村에 옮겨 살았는데 지역이 그윽하고 지세가 막혀서 노닐기 마땅하여 이곳에서 한 해를 마치니 후진 중에 학업을 청하는 자와 사문을 묻는 자들이 찾아 왔다. 이후, 소수서원 教席에서 석전을 행하고 강회를 열었다. 이가순은 이 때 이미 칠순의 나이였으나 오히려 강건하였는데 작은아들 彙澈이 요절하는 것을 보고 병이 들어 1844년 3월 27일 집에서 손세하였다.

이가순은 어릴 때 학문에 나아가는 차례를 后山 李宗洙에게 물으니 후산이 性命義理의 변으로 순순하게 말하였다. 이가순이 장차 채찍을 가지고 학업을 청하려 했는데 후산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니 매번 한으로 여겼다.³⁸⁾ 사촌 형인 廣瀨 李野淳은 산림의 중망을 받았고 참판공 李泰淳은 벼슬을 많

37) 謫丹陽 丹是老先生所莅邑 名山 韻水 奇島 異巖 皆先躅所題品 公感慕舊蹟 逐曲追和(『霞溪文集』 권12, 行狀).

38) 公少時 問進學次第 后山翁 以性命義理之辨 循循說與公 將執策請業 而翁遽下世 每以爲恨(『霞溪文集』 권12 行狀).

이 하였다. 이가순은 비록 명예로운 벼슬길에 자취를 드러냈으나 한 세대의 文學으로 추증을 받았다.³⁹⁾

이가순은 평소에 山水를 좋아하여 선인의 발길이 거친 곳과 명현의 남긴 차취는 뜻을 다해 찾았다. 松西 姜樛과 더불어 북으로 越中에 노닐며 關海의 여러 승경을 두루 관람하고 동으로 楓嶽에 들어갔다. 이때에 柳喆祚가 高城 군수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유림과 논의하며 뜻이 맞지 않았다가 서로 대면하게 되자 기뻐하며 허물이 없이 지냈다. 함께 山澤의 승경을 마음껏 관람하고 聯詩를 읊어서 遊錄을 남겼다. 霞溪漫錄 약간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나의 글은 세상에 전하기에 족하지 않으니 남겨서 자손을 위하여 보관한다면 그 남긴 시를 알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그의 문집으로 霞溪集이 있는데 이 책은 1903년 현손 鐸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⁴⁰⁾

(2) 李家淳 <退溪九曲詩>의 세계

李家淳은 산수 유람을 좋아하여 경상도 일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명산과 대찰, 명현의 유적지를 두루 편답하고 그 때마다 시로써 소회를 읊었다. 청량산, 일월산, 소백산, 금오산, 화왕산, 팔공산을 비롯하여 두류산, 지리산, 설악산, 내외 금강산 등 주요 명산의 답산은 물론이고 玉山 晦齋 體仁廟, 許租 遺墟, 壯節 申崇謙 사당, 慎齋 周世鵬 선산, 敬順王廟, 金后稷 諫墓, 土亭 李芝函 遺址 등을 參謁하였다. 스스로 “산수에 벽이 있어 가까운 데로는 청량, 일월, 태백, 소백, 학가산을, 먼 데로는 팔공, 주왕, 내연, 금오, 가야, 무릉산을 편력했다”⁴¹⁾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무이구곡도가의 차운시는 물론이

39) 同堂兄弟 廣瀨翁野淳 負山林重望 參判公泰淳 以宦業歷駁 公雖以名塗發迹 而一世之以文學見推(『霞溪文集』 권12, 行狀).

40) 권말에 탁의 발문이 있다. 문집은 권1~4는 시 860수, 권5~7은 소疏 14편, 서書 30편, 잡저 9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余瀾山水 近而清涼日月太白小白鶴駕 遠而八公周王內延金鰲伽倻武陵 殆遍歷焉(『霞溪文集』

고 퇴계구곡시를 비롯하여 도산구곡시, 옥산구곡시, 원명구곡시, 소백구곡시 등 5편의 구곡시를 남겼다.

그러면 이가순이 지은 퇴계구곡시에 대해 고찰보기로 한다.

이가순의 퇴계구곡시는 서시를 포함하여 10수로 되어 있고, 주자의 武夷九曲權歌를 차용하여 앞에서 고증한 퇴계구곡 원림을 대상으로 읊은 시이다. 따라서 이 퇴계구곡시는 九曲歌系 詩歌의 創作 九曲詩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園林 九曲詩에 속한다.⁴²⁾

薪水仙家咏乞靈	신수의 선가에서 선령을 읊으니
兜溪風月一區清	토계의 풍월에 한 구역이 맑아라
雲仍百世羹檮感	후손들 백세토록 사모하는 마음이
遙寓夷山古權聲	멀리 무이산 옛날 뱃노래 소리에 깃드네.

序詩에서는 퇴계선생이 거닐었던 퇴계구곡에서 실제로 구곡을 경영하며 뱃노래를 읊으면서 느낀 작자의 퇴계선생에 대한 사모의 정을 토로하고 있다. 성현이 살던 명구승지에서 음풍농월을 벗 삼으니 이곳이 더욱 道가 밝은 청정 지역이 된 것 같다는 심정과 퇴계의 후손들이 선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구곡도가를 통하여 더욱 간절해짐을 드러내었다.

一曲絲津喚暮船	일곡이라 사진에서 저녁 배를 부르니
溪循山北入南川	시냇물 산북 따라 남쪽 내로 들어가네
何年鑄却銀唇貢	어느 해 은어 공물 물리쳐 버리고
依舊漁村畫裏煙	예전처럼 어촌이 그림 속의 경치 되려나.

제 1곡은 넓은 낙동강에서 토계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옛날에는 이곳

卷3, 詩, 蓬萊遊錄并小序).

42)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에 나루가 있는 듯하다. 퇴계구곡 뱃놀이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한 이 사련진 근처에서는 당시 銀魚 貢物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魚梁이 설치되어 있었다. 銀口魚 또는 銀光魚라고 불리는 은어는 우리나라 민물고기 가운데 그 맛과 향기가 좋아 과거 임금에게 진상하는 중요한 공물이 되었다. 안동의 유명한 특산물이었던 안동은어는 7월 초순이 산란전이라 그 맛이 일품이므로 이를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하여 이때신 현감이 1737년(영조 13)에 사재를 털어 석빙고를 만들기도 했으나 지금은 안동댐으로 인해 안동은어가 거의 사라졌다. 사련진 근처와 도산서당 앞 천연대 밑에는 은어가 많아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관에서 어량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금렵하여 그 곳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불편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어 잡는 철에는 매우 혼잡하여 시장판 같았을 것이므로 霞溪는 이를 매우 못 마땅히 여겨 ‘조용한 어촌, 그림속의 이상향을 회구하였다.

二曲山門對兩峯	이곡이라 산문은 두 봉우리 마주하고
霞蒸蓮秀媚春容	노을에 연꽃 빼어나 아름다운 모양이네
生涯萬卷眞休地	생애가 만권의 책이니 참으로 설만한 곳이며
西近陶山只一重	서쪽은 도산과 가까워 다만 한 겹이라네.

퇴계선생이 1546년 46세 때에 養眞, 顧神하기 위하여 지산와사에서 擘芝山 남쪽 동암에 양진암을 짓고 독서와 구도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제 2곡은 양진암의 위치와 경관, 책으로 가득한 양진암의 학문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동암에서 은거하면서 “만권 속의 이 생애 의탁 있어 기뻐구나. 한 보습 이 마음이 무엇을 구하리요”⁴³⁾라고 읊은 퇴계선생의 심경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43) 萬卷生涯欣有托 一犁心事歎有求(『退溪集』 권1, 詩, 東巖言志).

三曲茅齋小似船	삼곡이라 띠집은 작기가 배와 같고
不堪風雨庇多年	풍우를 막지 못하고 여러 해를 지내왔네
山空鳳去篋無實	봉황 떠나 산이 비니 대나무엔 열매 없고
石丈千尋任護憐	높이 솟은 돌이 가련함을 말아서 보호하네.

퇴계선생은 양진암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하다가 단양군수, 풍기군수를 역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땃골 서쪽에 조그마한 초옥을 지어 거처한 적이 있다. 하계는 이 청빈한 생활상을 ‘띠 집은 작기가 배와 같고 풍우를 막지 못했다’고 하였다. 제 3곡에서 霞溪는, 퇴계선생이 살지 아니한 땃골은 봉이 떠난 산과 같고 봉이 먹는 대나무 열매는 소용없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다.

四曲花臺臺下巖	사곡이라 화대는 대 아래가 바위이니
魚川游泳鳥雲從	물고기는 냇가에 노닐고 새는 구름 속에 나네
鱗鳴誰瀉薰絃入	금옥소리 누가 향기로운 현에다 쏟아 넣어
閑聽希音滿石潭	석담 가득 희귀한 소리를 한가롭게 듣게 하나.

제 4곡은 옥쟁반의 구슬소리가 들리는 鱗鳴瀨인데 장명퇴 바로 위쪽에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피는 花巖臺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시인은 魚躍于淵하고 鳶飛戾天하는 자연의 哲理를 발견하였고 더욱 금옥 같은 물결 소리는 화음을 이루어 삼라만상이 조화로움과 즐거움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경지가 바로 퇴계선생이 추구하고 유학자들이 회구하는 도의 경지임을 은근히 내비추고 있다.

五曲蒼藤古木深	오곡이라 푸른 등녕쿨에 고목이 깊으며
虛明一室擁泉林	텅 빈 밝은 집 한 채 입천에 쌓여있네
窓前自有彈琴石	창 앞엔 절로 거문고 타는 돌이 있지만

誰識龍門理韻心 누가 용문의 운을 다스리는 마음을 알겠나.

1550년 2월에 퇴계선생은 뗏골에는 시내가 없고 고을이 좁아서 上溪(웃토계)의 토계천 서쪽에 초가집 寒棲庵을 짓고 靜習堂을 마련하게 되었다. 溪庄, 溪舍라고 부르는 한서암은 서쪽에 산을 등졌고⁴⁴⁾ 동쪽으로는 시내 건너 古藤巖이 있었다. 선생은 한서암 앞에 圓形의 光影塘을 만들고 연못가에 매화와 버들을 심었고 정원에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참외를 심었다. 그리고 이 池塘 가에 있는 자연석은 彈琴石이라 하였고 거문고를 얹어 두는 바위를 橫琴石이라 명명하였다.⁴⁵⁾

하계는 제 5곡에서 고목의 등나무가 뒤덮인 고등암, 텅빈 한서암, 외로이 홀로 남은 탄금석을 보고서 그 누가 퇴계선생의 깊은 도심을 알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六曲溪回更一灣	육곡이라 시내 돌아 다시 한 굽이 되니
鳥鳴花發繞巖關	새 울고 꽃 피어 암관을 둘러네
山林日用春來富	산림의 일상은 봄이 와서 한창이니
上下同流物物閑	위 아래로 함께 유행하여 사물마다 한가롭네.

제 6곡 林富洞은 우거진 수풀도, 아름다운 경치도 찾아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이곳이 산림이 우거져 새 울고 꽃 피는 승경을 이루고 있었음을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뜻한 봄철을 맞이하여 霞溪는 임부동에서 山水 上下가 조화를 이루고 天理가 流行함으로써 물욕이나 분주함은 찾아 볼 수 없고 만물이 온존하는 도의 세계를 만끽하고 있음을 읊고 있다.

44) 한서암도 습기 때문에 동쪽으로 옮겨 지었다고 하나 그 뒤 다시 서쪽으로 옮기는 등 이동이 세 번 있었다고 한다(權五鳳, 예던길, 우신출판사, 1988, 25쪽).

45) 先生 五十歲 尙無家 初卜于霞峰中 移于竹洞 竟定于退溪之上 宅西臨溪 作精舍 名曰寒栖 引泉爲塘 名曰光影 植以梅柳 開以三逕 前有彈琴石 東有古藤巖(『退溪集』, 年譜).

七曲金華廿口灘	칠곡이라 금화는 스무 곳의 여울이고
牛山灑氣夜來看	우산의 청명한 기운은 밤에야 보이네
誰教濯濯頻從牧	누가 살찐 소를 자주 와서 먹이는가
却怕孤根雨露寒	문득 외로운 풀뿌리 우로에 추울까 두렵네.

제 7곡 羊坪의 금화에는 온갖 골짜기 물이 다모이고 水晶石의 산지로 알려져 온 '牛山'의 水晶氣는 낮보다는 밤에 더욱 빛나는 듯하다고 지명에 따른 地象을 일깨우고서 牧牛에 긴요한 풀뿌리가 우로에 혹여 시들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살며시 드러내고 있다. 근본을 중시하는 유학자의 심성, 수신의 방도를 먼데서가 아니라 지극히 가까운데서 찾고자 하는 도학자의 마음가짐을 描出했다고 볼 수 있다.

八曲陁陀亂石開	팔곡이라 반석에는 어지러이 돌이 열리고
淸吟臺下水灣洄	청음대 아래로 물굽이가 돌아가네
四山躑躅年年紫	사방 산에는 철쭉이 해마다 붉게 피고
曠想肩輿去不來	견여는 가서 오지 않을 줄 흔히 생각하네.

제 8곡시는 퇴계선생의 숙부요 스승인 宋齋 李塈의 精舍였던 兜溪精舍 맞은 편 시냇가에 있는 淸吟石 주위의 봄 경치와 청음석 설화와 연관하여 송재선생과 퇴계선생을 추모하는 정을 읊고 있다. 이 8곡에는 반석이 깔려 있는데 반석 위로 흐르는 토계의 중간 중간에 큼직한 돌들이 벌려 있어 물굽이가 급하게 흐르지 않고 사방의 주위 산에는 철쭉이 붉게 불타듯 피어 있음을 묘사하고 이 시내에서 숙부 송재선생이 관원의 배알을 받고 퇴계선생과 함께 시 짓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九曲雲山縹緲然	구곡이라 구름 덮힌 산이 아득히 보이고
雙溪十里走前川	쌍계가 십리를 흘러내려 앞 내를 달리네

蒼松古宅亭亭立 푸른 소나무 고택에 꽃꽂하게 서 있으니
道域栽培歲春天 세모에 도가 서린 땅이 자라게 함이라.

淸溪와 溫溪가 합류하는 제 9곡 雙溪는 退溪川이 시작되는 지점이면서 퇴계곡이 끝나는 지점이다. 퇴계선생의 윗대는 두루마을에 살았는데 온혜로 옮겨온 것은 이황선생의 조부 老松亭 李繼陽이다. 하계는 퇴계선생이 온혜의 노송정 고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9곡 쌍계를 “도가 서린 땅”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李家淳의 退溪九曲詩는 前 2句에서는 각 곡의 주위 景觀과 風致를 묘사하고 있고 後 2句에서는 퇴계선생에 대한 懷古의 情이나 性情之正을 托物寓意하여 읊고 있다. 따라서 이가순의 이 구곡시는 因物起興의인 詩라고 평할 수 있다.

2) 李宗休의 退溪九曲詩

(1) 이종휴의 삶과 학문

이종휴의 본관은 固城, 자는 幼禎, 호는 下庵이다. 이종휴의 父는 孝慶이고 生母는 南陽洪氏로 適의 딸이다. 1761년 4월 태어나서 仲父인 桐湖 李弘蓍에게 배웠는데 수년 사이에 四書와 詩書를 통하고 朱子綱目을 겸하여 읽었다. 날마다 수천 개의 말을 배우고 아침에 문득 등을 돌리고 외우면 막힘이 없었다. 매번 책을 안고 빈 누대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서 아무도 모르게 거하며 묵묵히 외우면 하루가 다하도록 밥 먹기를 잊었다.⁴⁶⁾

15세에 南野 朴孫慶에게 수학하였는데 박손경이 매번 여러 유생을 돌아보며 “이 사람은 곧 曹先進 같다.” 하였다. 이종휴가 돌아가려 하자 박손경이

46) 數年之間 通四子詩書 兼讀朱子綱目 日受數千語 而詰朝 輒背誦無滯 每抱卷入空樓 廢室中 潛居默誦 竟日忘食十(『下庵集』 권6, 行狀).

“학문하는 요체는 立志를 먼저 한다. 그 독서의 순서는 程子の 大學 篇題에 있으니 또한 돌아가 이를 구하라.”고 하였다. 이종휴가 선생의 가르침을 우러러 새기고 마음에 두고서 힘써 구하니 나이 겨우 15세에 궁구하여 이른 것이 노숙한 듯하였다.⁴⁷⁾

1777년 처음 鄉解를 보았는데 伯氏가 두 시험에 합격하니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家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배움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곧바로 水南의 先亭에 가서 문을 닫고 孟子 한 부를 읽은 지 40일에 매우 익숙히 외웠다.⁴⁸⁾ 백씨의 문경 연회에 大山 李象靖이 왔는데 이종휴가 가진 뜻의 돈독함을 매우 칭찬하고 끝에 반드시 성취가 있으리라 하였다.⁴⁹⁾

1783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잠시 성군관에 머물다가 곧 귀향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일과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종휴는 집안의 예절을 중시하고 군자의 학문을 강조하였다. 가난한 집안사람들을 돕는 일을 앞장서 실천하였고 비록 나이 어린 자질도 예로써 대하였다. 그리고 과거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군자가 되는 학문을 중시하였다. 그는 집안의 자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고인이 이르기를 ‘부모가 원하고 향당이 영광으로 여긴다.’ 하였으니 제군이 어찌 군자가 되지 않겠는가? 대저 군자가 되는 도는 오로지 독서와 강학에 달려 있으니 百千의 사람들이 군자가 된다면 우리 가문의 경사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하였다.⁵⁰⁾

이종휴는 위로는 六經과 四書에서 아래로 百家와 外史까지 섭렵하고 연구

47) 先生 每顧諸生曰 此子乃若書先進也 及歸 先生 又贈言曰 爲學之要 立志爲先 而其讀書階級 在程子大學篇題 且歸而求之 公仰體師訓 潛心力究 年纔志學 而如老於窮格者(『下庵集』 권6, 行狀).

48) 丁酉 始赴鄉解 見伯氏進士公捷兩試 歎曰 我之不及家兄 以學未至也 卽往住水南先亭 閉門 讀鄒書一部 居四旬 爛熟成誦(『下庵集』 권6, 行狀).

49) 及伯氏聞喜之宴 大山 李先生 來臨 亟稱志尙之篤 終必有成(『下庵集』 권6, 行狀).

50) 諭門子弟曰 古人云 父母願之鄉人榮之 諸君何不爲君子 夫爲君子之道 專在讀書講學 百之千之人人 皆爲君子 則吾門之慶 孰大於是(『下庵集』 권6, 行狀).

하지 앎이 없었고 尙書, 中庸, 大學, 心經, 近思錄, 朱書節要 등의 책을 갈아 읽고 익숙히 알아서 마치 자기 말을 외우는 듯하여 총명이 늙어도 쇠하지 않았다.⁵¹⁾

이종휴는 학문과 문학에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감추고 저술에 힘쓰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학문을 경계하고 안으로 실천하는 학문을 강조하였다. “정자, 주자, 퇴계의 가르침은 밝기가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과 같다. 이로써 경전의 설을 구한다면 선명히契合하지 앎이 없으니 어찌 시령에다 쌓겠는가?” 하였다.⁵²⁾

1832년(순조 32) 5월에 하세하였고 문집으로 下庵集이 있다.⁵³⁾ 그는 300여 편 이상의 많은 한시를 남겼는데 만사와 더불어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작자의 한가로운 심정을 다룬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권4의 鳳停寺德輝樓記와 歸來亭重修記 등은 문화유적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잡저의 南行日記는 1812년 저자가 남행을 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 李宗休 <退溪九曲詩>의 세계

下庵 이종휴도 武夷九曲權歌 차운시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퇴곡곡시와 옥산곡시, 도산곡시를 창작하였다. 그는 “漱石 주인 李健之가 무이곡운을 차운하고 옥산, 퇴계, 도산 곡운을 노래하고서 나에게 화답을 청하기에 즐림함을 잊고 지어드린다”⁵⁴⁾라고 詩題하여 李野淳의 권유로 퇴계곡시를 창작

51) 上自六經四子 下逮百家外史 無不涉獵研究 而用功深處 尤在尙書庸學心近節酌等書 輪流熟復 如誦已言 聰明老而不衰(『下庵集』 권6, 行狀).

52) 又曰 程朱退陶之訓 昭如鑿鑿 以是 求經說 則無不契合 何用架疊爲(『下庵集』 권6, 行狀).

53) 권1에 시 162수, 권2에 시 153수, 권3에 書 60편, 축문 3편, 권4에 祭文 29편, 序序 3편, 記 5편, 題跋 13편, 권5에 雜著 9편, 遺事 5편, 行錄 4편, 권6은 부록으로 漫事·애사·제문·행장·묘갈명과 부인 永川李氏의 묘지명 등이 실려 있다. 서문은 없고, 6대손 錫義의 識가 있다. 행장은 종질 李耆秀, 묘갈명은 權相圭가 각각 찬하였다.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李野淳의 문집인 廣瀨集에는 무이구곡도가 차운시와 도산구곡시만 실려 있을 뿐이고 옥산구곡시와 퇴계구곡시는 실려 있지 않다. ‘健之’는 분명히 李野淳의 字이고 後溪集에 漱石亭은 광래 李野淳이 지은 정자임⁵⁵⁾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詩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왜 광래집에 옥산구곡시와 퇴계구곡시가 빠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종휴의 退溪九曲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退溪九曲詩 역시 서시를 포함하여 총 10수로 구성되어 있다.

一朵拳芝萬丈靈	한 줄기 지초 빼어나 만 길이나 신령하니
山由人勝水由清	산은 사람으로 빼어나고 물은 맑아서라네
廣歌幾疊雲屏好	화답시 몇 첩이 구름 병풍보다 좋고
昭代洋洋有正聲	밝은 시대 양양하여 바른 소리가 있네.

序詩에서는 영지산에서 발원된 퇴계천 주위 퇴계구곡의 신령함은 퇴계선생이 존재했기 때문임을 드러내면서 구곡의 뱃노래 아름답게 퍼지는 것은 문화가 찬란한 태평성대 때문이라고 우의하였다.

一曲清溪不用船	일곡이라 맑은 시내 배를 쓰지 않으니
盈科日進放前川	웅덩이 넘쳐 날로 나아가 앞 내를 흐르네
沉絲七晝微周禮	칠일 주야를 사련에 잠겨 주례를 징험하고
秦火何勞掇古烟	진시황 화마에 어찌 옛 연기 가리려 수고했던가.

제 1곡 絲練津은 하암 당시에도 학문과 예의의 고장인 안동의 인심을 어

54) 漱石主人李健之 次武夷九曲韻 仍歌玉山退溪陶山九曲 要予追和 忘拙步呈(『下庵集』卷2, 詩).

55) 漱石亭 在紫霞峯之東洛川之上臨流 有巖石 擬名漱石 將築亭未畢 詩有漱石亭基已卜來之句 後孫 野淳 築室構亭於其址 仍名漱石亭(『後溪集』卷5, 雜著).

지럽히고 예의를 무너뜨리는 반문화적인 물욕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었던 듯하다. 霞溪도 은어 공물 때문에 관에서 어령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왕래를 금하는 폐단을 지적했듯이 下庵도 퇴계구곡 제 1곡인 사련진에 배가 드나들 수 없음을 한탄하고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우의하여 물질만능으로 순후한 인심과 풍토, 옛 문화의 황폐화를 우려하였다.

二曲偉然第一峰	이곡이라 아름다운 제일봉은
千年仰止德人容	천년토록 앙모한 덕인의 모습일세
養眞庵外無名樹	양진암 밖 이름 없는 나무는
弟子當時植幾重	제자들 당시에 몇 번이나 심었던가.

養眞庵이 자리 잡은 건지산의 웅장하고卓立한 모습에서 천년 전 유학의 宗主인 주자의 威德을 연상하여 추앙하고 양진암 주위의 수많은 수목들을 보고서 당시 퇴계선생의 많은 제자들을 회고하면서 퇴계선생을 추모하였다.

三曲如登太乙船	삼곡이라 태을선에 오르는 듯 한데
佳名靑竹幾何年	아름다운 이름 푸른 대는 몇 해였던가
高崗瑞鳳空千仞	높은 산 봉황은 천길 허공에서
采采琅玕却自憐	옥을 캐고 캐니 절로 가련하네.

제 3곡 竹洞은 퇴계선생이 고을이 좁고 시내가 없어서 잠시 거쳐하던 곳인데 하얗은 이곳을 큰 새처럼 생긴 태을선에 비유하고 청죽만이 무성함을 보고 퇴계선생이 살던 지난날을 회상하였다. 또한 청죽을 보고 천길 높이 날면서 아무리 배가 고과도 黍粟과 같은 잡식은 먹지 아니하고 오로지 대나무 열매만을 골라 먹는 봉황⁵⁶⁾을 연상하고 人中の 봉황이라 할 수 있는 퇴계선

56) 鳳飛千仞飢不啄粟(朱子, 十丈夫歌).

생의 淸貧한 삶을 기리고 있다.

四曲清流嚙古巖	사곡이라 맑은 물은 고암을 물고 있고
長鳴孤鶴羽衣氎	길게 우는 외로운 학은 깃털을 드리웠네.
靈源十壘無人到	신령한 근원 열 겹인데 이르는 사람 없고
山自重重水自潭	산 절로 거듭되고 물 절로 맑다네.

제 4곡 鏘鳴瀨에서 시인은 물가의 화암대를 맑은 물이 물고 있다고 보았고 옥소리처럼 울리는 물소리는 憂憂 長鳴하는 학의 울음소리로 들었다. 여기에서 下庵은 순수 無垢하고 친진한 대자연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감히 속인들이 犯接할 수 없는 신령스런 도량에서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天理에 따라 움직이는 調和의 眞樂을 묘사하고 있다.

五曲幽棲占最深	오곡이라 그윽한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蒼藤文木鎖平林	푸른 덩쿨 문목은 숲속에 얽히었네
要看大老傳家訣	대노께서 전한 가결을 보려하니
虎尾春水證此心	조심 또 조심하며 이 마음을 징험하네.

九曲園林에서 제 5곡은 항상 주인의 자리이다.⁵⁷⁾ 주자도 무이구곡 제 5곡에 무이정사를 지어 거처하였고 퇴계선생도 퇴계구곡 제 5곡에 한서암을 지었고 그 옆에 상계서당, 즉 계상서당을 지어 본격적으로 제자 양성을 시작하였다. 계상서당 앞에는 직사각형의 방당을 파고 연을 심었으며 사립 담장 입구에는 석문을 세우고 외나무다리를 놓았다. 정원에는 松, 菊, 梅, 菊, 蓮과 자신을 포함하여 六友園을 만들었다.⁵⁸⁾ 한서암과 계상서당 근처에 푸른 넝쿨이

57) 重天乾 卦의 九五는 “飛龍在天 利見大人” 主爻로서 剛健中正하니 가정에서는 父, 나라에서는 君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8) 李栴海, 퇴계의 서원 건축관과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 건축에 반영된 조영사상, 도산서원.

무성한 고등암이 있었는데 前 2句는 고등암 숲속에 자리잡은 한서암과 서당을 묘사한 것이다. 後 2句에는 퇴계선생이 가학으로 전하는 덕업의 요체를心得하려는 후손의 비장한 마음가짐이 엿보인다.

六曲登揚別灣	육곡이라 오르고 오르니 모두가 다른 굽이이고
山扉風掩畫常關	산중 삼작은 바람 막으려 그림처럼 닫혀있네.
林居是處經綸富	숲속 이곳에 거처하니 경륜은 넉넉하고
流水桃花共我閒	물 위에 떠 흐르는 복사꽃은 나와 함께 한가롭네.

제 6곡 林富洞은 옛날 숲이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하던 평온한 勝地였다고 생각된다. 고요한 숲속 초옥은 오가는 이 없이 적막하고 물위에는 복사꽃이 한가로이 흘러가는 그림 같은 공간이고 무릉도원이 연상되는 신선의 고을이다. 요산요수의 멋, 자연의 眞樂을 맛보는 物我一體의 경지를 묘출하고 있다.

七曲冷冷響遠灘	칠곡이라 맑고 맑게 멀리 여울 소리 울리고
平郊牧夢畫圖看	평평한 들 목동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 본다네.
今周氣象觀于野	오늘의 날씨 들판에서 짐쳐 보자니
溪草山花帶露寒	시내 풀과 산꽃은 차가운 이슬 머금었네.

제 7곡 羊坪은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목동은 한가로이 피리를 불고 있음직하다. 지명이 그렇고 실제 그러했을 수 있다. 시인도 이런 경지를 꿈속에서 그려본다고 했다. 시냇가의 풀과 들꽃들이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생활상을 정겹게 묘사하였다.

八曲遙看洞府開	팔곡이라 멀리 보니 신선 사는 곳이 열렸고
仙人十二好浴洄	열 두 명의 신선 물 따라 오르내리며 좋아 하네

한길사, 2001.

山前一帶清吟地 산 앞에는 한 줄기 청음지가 둘러있어
 如待閒筇遯迺來 한가한 지팡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듯하네.

두계정사 앞 퇴계천 반석 淸吟石에서 퇴계선생이 자질들과 함께 모여 그 전에 숙부 송재 선생과 거닐던 일을 추억하며 놀던 일을 회상하면서 퇴계선생에 대한 사모의 정을 토로하고 있다.

九曲源深境杳然 구곡이라 근원 깊어 아득한 곳인데
 雙流如鏡下成川 거울 같은 두 줄기 흘러 내를 이루네.
 山河大地胚胎好 산하와 대지가 배태하기 좋고
 開鑿人文揚是天 인문을 개발하여 하늘같이 드높다네.

제 9곡 雙溪는 퇴계선생의 태실이 있는 노송정에서 흘러오는 온계와 낙모봉에서 흘러오는 청계가 만나는 지점이요 퇴계구곡의 마지막 굽이이다. 대개 구곡원림의 제 9곡은 별천지가 펼쳐지는 곳이다. 이곳도 퇴계선생이 태어난 곳이니 신천지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제 9곡 쌍계는 1-8곡보다는 확 트인 들판이기 때문에 무이구곡 제 9곡의 ‘豁然한 別有天’⁵⁹⁾이 연상된다. 그래서 작자는 산하와 대지가 퇴계선생과 같은 도덕군자를 배태했고 인문이 개발되어 덕행이 하늘처럼 높다고 칭송하고 있다.

이종휴의 퇴계구곡시도 각 곡에서 敍景과 抒情을 통해 托物寓意의 수법으로 吟詠性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가순의 퇴계구곡시에 비하여 道學의 妙理를 담은 작품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59) 九曲將窮眼豁然 / 桑麻雨露見平川 / 漁郎更覓桃源路 / 除是人間別有天(武夷九曲權歌 第九曲).

4. 결 론

퇴계구곡에 대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계구곡 원림은 실제로 존재하였고 부분적으로는 다소 훼손된 비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잘 보존되어 있었다. 제 1곡 사련진으로부터 제 9곡 쌍계까지의 거리는 약 5.5km로 중, 소형의 구곡원림에 속하였으며 퇴계선생이 1546년부터 1559년까지 주로 거처하던 토계천 주위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제 1곡 사련진은 도산구곡 제 6곡 근처로서 낙동강에서 토계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현재 그 근처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옛날에는 그곳에 나무가 있었던 것 같다. 제 2곡 양진암은 제 1곡으로부터 약 1km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현재 양진암 표석이 세워져 있고 뒤편에는 퇴계선생의 묘소가 있다. 이곳은 이육사 문학관으로 가는 삼거리 길목이다. 제 3곡 죽동은 제 2곡으로부터 퇴계선생 종택 쪽으로 7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간 땃골이라는 곳이다. 제 4곡 장명퇴는 제 3곡에서 200m정도 종택 쪽으로 떨어진 지점으로 옆에는 성황당이 있는데 현재는 보가 놓여 있다. 제 5곡 고등암은 계상서당 근처인데 상계1교와 상계2교 사이 지점이다. 상계1교 앞에는 시내에 바위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등암으로 추정된다. 한서암 옛터와 토계 사이에 있는 논에 크고 넓은 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탄금석이다. 제 6곡 임부동은 제 5곡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토계교 아래로 흐르는 물이 이 지점에서 한 굽이를 이루는데, 이 굽이 왼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은 이 굽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옆으로 도로가 있으며 도로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제 7곡 양평은 제 6곡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양평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퇴계천이 이 지점에 이르러 한 굽이를 이루고 흘러가는데, 굽이 오른쪽엔 양평 마을이 자리하고 왼쪽엔 그리 넓지 않은 들판이 있다. 제 8곡은 제 7곡에서 퇴

계선생의 숙부 이우가 거처하였던 두계정사 맞은편 시내에 자리한 청음석 주위이다. 제 9곡 쌍계는 만리산에서 발원한 청계와 용두산에서 발원한 온계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 굽이 왼쪽으로는 퇴계선생 태실로 이어지고 오른쪽은 얇은 산과 그 아래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계구곡시는 하계 이가순과 하암 이종휴, 두 사람이 남겼다. 이가순은 산수 유람을 좋아하여 경상도 일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명산과 대찰, 명현의 유적지를 두루 편답하고 그 때마다 시로써 소회를 읊었고 무이구곡도가의 차운사와 퇴계구곡시를 비롯한 도산구곡시, 옥산구곡시, 원명구곡시, 소백구곡시 등 5편의 원림 구곡시를 남겨 옥소 권섭과 유사한 면이 많다. 이가순의 퇴계구곡시는 전 2구에서는 각 곡의 주위 경관과 풍치를 묘사하고 있고 후 2구에서는 퇴계선생에 대한 회고의 정이나 성정지정을 탁물우의하여 읊고 있다. 따라서 이가순의 이 구곡시는 인물기흥적인 시라고 평할 수 있다.

이종휴도 무이구곡도가 차운시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퇴계구곡시와 옥산구곡시, 도산구곡시를 창작하였는데 이종휴의 퇴계구곡시도 각 곡에서 서경과 서정을 통해 탁물우의의 수법으로 음영성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가순의 퇴계구곡시에 비하여 도학의 묘리를 담은 작품이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李家淳, 霞溪集, 國立中央圖書館本
 李野淳, 廣瀨集, 國立中央圖書館本
 李頤淳, 後溪集, 國立中央圖書館本
 李宗休, 下庵集, 韓國國學振興院本
 李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31. 民族文化推進會, 1988.
 吳守盈, 春塘集, 韓國國學振興院本
 吳澐, 竹窟先生文集, 韓國國學振興院本
 趙翼, 浦渚集, 韓國文集叢刊85; 民族文化推進會, 1988.

2. 저서 및 논문

姜正瑞, “九曲歌系 詩歌에 나타난 空間이미지와 志向意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權五鳳, 예딘길, 우신출판사, 1988.
 권정은, “樓亭歌辭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김대중 편역, 도산에 사는 즐거움, 돌베개, 2008.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학회, 1991.
 _____, “玉所 權燮의 九曲歌系 詩歌 연구”, 晴峯崔台鎬博士華甲紀念論叢, 2000.
 _____, 聞慶地方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9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_____, 聞慶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한국학술정보(주), 2005.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金銀美,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이화여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1991.
 金炳國, 高山九曲歌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金昌沅, “壺中天地의 原林美學과 <陶山十二曲>의 江湖”, 국어국문학 118, 국어국문학회, 1997.

-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 출판부, 2000.
- 안장리, 韓國 八景詩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 俞俊英, “九曲圖의 發生과 機能에 대하여”, 고고미술 151호, 한국미술사학회, 1981.
- _____, “조형예술과 성리학”, 도원 유승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83.
- 尹軫暎, 朝鮮時代 九曲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5.
-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 李佑成, 陶山書院, 한길사, 2001.
- 李殷昌, “韓國儒家傳統園林의 研究”, 한국전통문화연구 4, 호성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8.
- 丁淳陸, 退溪評傳, 지식산업사, 1989.
-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造景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崔珍源, 韓國古典文學의 形象性, 성균관대출판부, 1988.

Abstract

A Study on Toegyegugok(退溪九曲) and Toegyegugok Poems

Kim, Mun-Ki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an academic investigation into Toegyegugok(退溪九曲) conducted last summer in an attempt to ascertain historical evidence for each spot of it and its natural characteristics, and it's also meant to look into Toegyegugok poems and the lives and learning of the poets.

An academic investigation was implemented into Toegyegugok in August 2007 to confirm its existence, and that made it possible to find out the exact location of it. In general, that remained intact, though it was partly damaged to some extent. That was 5.5km long and along Togye River, a branch stream of Nakdong(洛東) River where Toegye's remains were rampant. It is not sure whether this spot was designated while he was alive.

There were two poets who wrote poems about Toegyegugok : Lee Ga-sun(李家淳) and Lee Jong-hyu(李宗休). In Lee Ga-sun's poem, each valley's scenery and scenic beauty were portrayed in the first two lines, and he described his affection for Toegye(退溪) and the uprightness of man allegorically by using things in the second two lines. So his poem could be said to depict how he was elated by things.

Lee Jong-hyu composed poems about Toegyegugok(退溪九曲), Oksangugok(玉山九曲) and Dosangugok(陶山九曲) as well. In the poem about Toegyegugok, he allegorized human nature. Overall, however, his Toegyegugok poem described more principles of moral philosophy than that of Lee Ga-sun.

Key Word

Toegyegugok, Toegyegugok Poems, Lee Ga-sun, Lee Jong-hyu, Dosangugok, Oksangugok, scenic beauty, the uprightness of man, moral philosophy

- 논문투고일 : 2007.12.30. 심사시작일 : 2008.01.17. 심사완료일 : 2008.01.27.

